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특징: 1970~2018

김린¹, 박수진^{2*}

¹동양미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²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Features of Korean Feminist Design Studies: 1970~2018

Lynn Kim¹, Soo-Jin Park^{2*}

¹Professor,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Dongyang Mirae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요약 최근 페미니즘이 주요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디자인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계보를 제공하고,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특징을 분석한다. 먼저 '페미니스트 디자인'을 정의하고, 용어의 기원이자 국내 연구의 특수성 분석을 위한 비교군으로서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역사를 살펴본다.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수는 1999년 급증한 후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연평균 5.1건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전체 연구 중 패션, 시각, 건축, 디자인학, 제품 순으로 연구 수가 많았다. 연구 주제의 경우 2000년대 이전 연구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고정된 역할 탈피를 다루던 것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성과 탈 중심성의 포용으로 이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후 장애인, 생태, 퀴어 등 더욱 세분화, 다양화된 주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연구의 분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된다.

주제어 : 페미니즘, 디자인, 페미니스트 디자인, 문헌고찰, 융합

Abstract In recent years, as feminism has emerged as a main value in Korean society, related design studies are also increasing. This research archived domestic feminist design studies to provide researchers with a genealogy of feminist design research. The research defines 'feminist design' prior to the collection of domestic feminist design studies, and examine the British-American history of the feminist design studies as an origin of the term. As a feature of the period, the number of feminist design studies surged in 1999, and since the 2000s, an average of 5.1 studies have been published annually. As a feature of each field, there were a lot of studies in fashion, visual, architecture, design science, product order in the whole studies. Feminist design researchers accumulate discourse on a clear line of studies and hope that this research will be renewed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Key Words : Feminism, Design, Feminist design, Literature review,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여성 삶의 다양성에 응답하는 포스트-포스트 페미니즘 또는 제4의 물결 페미니즘 흐름이 일고

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은 여성의 삶을 단일한 대표 의제(제1의 물결은 여성참정권운동, 제2의 물결은 여성해방운동)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운동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 결과 여성 삶의 다양성에

*Corresponding Author : Soo-Jin Park(curioussofa.sj@gmail.com)

Received July 29,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24,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응답하기 위해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은 학문의 다른 분과들과 적극적으로 교차성을 형성해 페미니스트 비평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영미권 디자인 연구 역사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 국내 페미니즘 역시 제3의 물결 페미니즘을 넘어 넷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각 계각층 여성 삶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1].

월간 <디자인>에서 김민정, 전은경은 2018년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 중 하나로 페미니즘을 언급하였으며[2],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더욱 강화될 주요 현상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2019년에는 한국 사회의 탈중양화, 급진적 다양성 추구의 경향을 트렌드 키워드로 꼽으며 페미니즘의 저변확대를 재확인했다[3]. 이와 같이 인간 삶의 가치, 사회 어젠다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디자인 분야는 최근 한국 사회 주요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페미니즘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그 예로, 김팬저가 지적한바, 사용자 중심 소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디자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텀블벅에서 2016년 중순 이후 최근 3년간 페미니즘 관련 디자인 콘텐츠가 급증한 현상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4].

한편, 이러한 디자인계의 변화에 발맞춰 디자인 연구 역시 페미니즘을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됨과 동시에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계보 정리의 필요성 또한 요청된다.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가 처음 발표된 것은 1993년이며, 연간 2건 이상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와 같이 짧은 역사를 지닌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분야이지만 2016년 이후 페미니즘의 재조명과 급성장으로 향후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기에, 현 시점에서 연구 목록을 한 곳에 모으는 아카이브 작업과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의 경향성 파악이 가장 시급한 연구 과제라고 판단했다. 후속 세대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계보를 형성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목록이 시사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모호한 정의로 인한 연구 분야 및 범주의 미지정, 둘째 ‘여성’, ‘페미니즘’, ‘디자인’ 등의 주제로 단순 검색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 내용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와 용어의 기원이 되는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목록과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본 연구의 초점이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아카이브와 그 의미 해석에 있기에, 국내 연구의 성과와 경향성을 해석하기 위한 비교군으로서 영미권 연구 목록의 검토가 선결되어야 했다.

영미권의 경우 1970년대부터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경우 1993년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까지 총 113건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검색 추출 방법은 구글 학술검색에서 ‘allintitle: feminist design’으로 검색되는 결과를 모았으며, 이 중 ‘연구 설계(research design)’ 등 design이 다른 의미로 사용된 연구는 제외했다. 국내 연구 목록의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 추출은 국내 학술지,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페미니즘, 디자인’을 주제로 검색한 결과 252건을 모은 후 초록 의미연결망 연구방법론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디자인’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논문은 제외하는 전수조사의 과정을 거쳐 148건을 1차 제외했다. 2차 추출은 ‘여성, 디자인’을 주제로 검색한 논문 8,253건 가운데 1차 추출 목록과의 중복 논문, ‘여성’의 일반적 관점(페미니스트 관점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여성 소비자 연구 등)과 ‘디자인’의 다른 의미(연구 디자인, 기계 설비 디자인 등)에 관한 연구를 제외한 결과, 최종 113건의 연구 목록을 추출했다. 199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목록 아카이브를 구축[5]하고 해당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시대별, 분야별, 저자별 경향성을 분석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주제의 이행 추이를 해석하고자 한다.

2.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2.1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정의

국내 선행 연구들의 제목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디자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디자인”, “페미니즘적인 경향의 디자인”, “페미니즘적 인식 망을 통해 본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지칭하는 정확한 개념어는 “페미니스트 디자인(feminist design)”이다. 페미니스트 디자인이란 기존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 일반화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재사유하는 디자인 행위 또는 디자인 연구의 태도를 의미한다. 페미니즘이 특정 분과 학문 담론에 개입할 때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 관점(feminist perspectives)”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출되는 해당 분과 학문의 인식론적 결과물은 “페미니스트 (분과 학문명)”이 된다. 페미니스트 비평, 페미니스트 아카이브 등이 그 예이다. 실제로, 학술검색에서 “allintitle: feminism design”을 입력했을 때 34건이, “allintitle: feminist design”을 입력했을 때 93건이 도출된다. 구글 학술검색 기준으로 비교해본 결과, 검색 결과의 정확도 또한 전자는 ‘feminism’과 ‘design’의 단어 조합 경우의 수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한 검색 결과의 허수가 높은 데 반해, 후자의 경우 ‘feminist design’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전방일치를 보여, 검색 결과의 연구 주제 근접도가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역사

1960년대 후반 1세계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주의 디자인은 페미니스트 비평에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1974년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이 ‘A Re-examination of Some Aspects of the Design Arts From the Perspective of a Woman Designer[여성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재검토한 디자인의 몇 가지 측면들]’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건축과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비평이 활발히 이루어진다[6]. 디자인된 결과물로서의 물질세계가 가부장제의 토대 위에 설계된 불균형에 관한 비평, 광고에 나타난 성적 고정관념 등이 다루어졌다[7]. 드 브레트빌은 약 10년 뒤인 1983년, *Space and Society* 지에 ‘Feminist Design[페미니스트 디자인]’을 발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페미니스트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디자인 담론의 개념어로 자리 잡게 된다[8].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영어권 학술검색에 노출되는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는 총 81건이다. 단, 영미권의 경우 디자인 연구의 주요 저작이 학술지가 아닌 정기간행물의 에세이로 수록되는 등 한국 연구 관행과는 다른 저작 환경에 놓여있다. 이로 인하여 다음 목록에 누락된 주요 저작에 관해서 개관하여 정리했다.

1993년 모드 라빈의 ‘Cut with the Kitchen Knife: Weimar Photomontages of Hannah Hoch[주방 가위로 자르다: 한나 호흐의 바이마르 포토몽타주]’는 페미니스트 비평의 작품 연구를[9], 같은 해 엘런 립튼의 ‘Mechanical Brides: Women and Machines from Home to Office[기계식 신부들: 여성과 기계, 가정에서 사무실까지]’는 제품 디자인 영역의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문이다[10]. 비슷한 시기인 1994년, 페미니스트 디자인사가 마사 스콧포드는 Messy

History vs. Neat History: Toward an Expanded View of Women in Graphic Design[너저분한 역사 vs. 깔끔한 역사: 그래픽 디자인계 여성들을 향한 확장된 관점]을 발표함으로써 미국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계보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올랐음을 보여준다[11]. 마침내, 1999년 조안 로스차일드 편집의 앤솔러지 “Design and Feminism: Re-Visioning Spaces, Places and Everyday Things[디자인과 페미니즘: 공간, 장소, 일상의 사물을 다시 보기]”의 출간으로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저작의 분수령 자리를 차지한다[12]. 이듬해 열린 전시 ‘Women Designers in the USA 1900–2000[미국의 여성 디자이너들 1900–2000]’를 토대로 팻 커크햄은 “Women Designers in the USA 1900–2000: Diversity and Difference[미국의 여성 디자이너들 1900–2000: 다양성과 차이]”를 출간하면서 2000년대를 맞이한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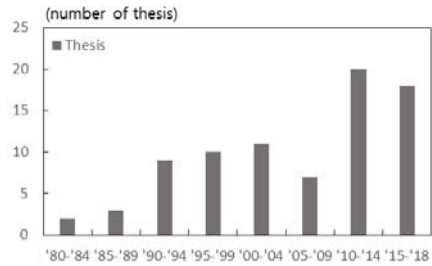


Fig. 1. Numbers of thesis on feminist design in western field, changes in every five years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 한 해 동안 발표되는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수는 Fig. 1에서와 같이, 10년을 주기로 발표되던 연구의 수를 웃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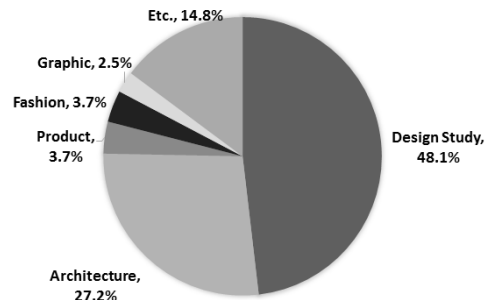


Fig. 2. Percentages of thesis in each design subjects, feminist design in western field

Table 1. Feminist design study in western field, number of thesis in each design subjects

	Theory	Archi tecture	Pro duct	Fash ion	Graphic	etc.	NET
'70-'74	-	1	-	-	-	-	1
'80-'84	2	-	-	-	-	-	2
'85-'89	2	1	-	-	-	-	3
'90-'94	6	1	-	-	1	1	9
'95-'99	3	6	-	1	-	-	10
'00-'04	2	8	1	-	-	-	11
'05-'09	3	1	1	-	-	2	7
'10-'14	9	3	1	1	-	6	20
'15-'18	12	1	-	1	1	3	18
NET	39	22	3	3	2	12	81

이상 Fig. 2와 Table 1에 정리한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분야별 분포는 디자인학과 건축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으며, 2005년 이후에는 텍크, 웹, 음식 등 디자인 분야의 변화상과 함께 연구 분야도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3.1부터 3.4까지 분석할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특징에 대한 비교군으로 밝혀둔다.

3.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특징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는 총 49건이다. 영미권의 첫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등장 연도는 1974년이며, 국내에서는 약 20년 뒤인 1993년에 첫 연구가 발표됐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연평균 1건 이하로 발표되던 페미니스트 디자인 학술지 연구의 수는 1999년부터 증가하여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연평균 2.2건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1990년대 초기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주요 연구 분과였던 패션 디자인에서 시작하여 시각, 건축 분야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은 총 54건, 박사학위 논문은 총 10건이다. 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이화여자대학교와 홍익대학교에서 다수의 페미니즘 디자인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반에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빈번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학술지 논문과 누적 집계하여 연구자 별로 정리해보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주제로 2개 이상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는 전체 118명 가운데 2명으로서 대부분

일회성 연구에 그치는 모습이다.

3.1 시대별 특징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매해 1-2건 발표되던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수는 1999년 한 해에만 7건으로 급증한다. 그 후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연평균 5.1건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됐다. 2.2.절에서 밝힌 조안 로스 차일드의 분수령적 저작이 발표된 1999년을 기점으로 밀레니엄을 맞아 이전 시대에 대한 자성과 미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전 지구적 시대의 필요로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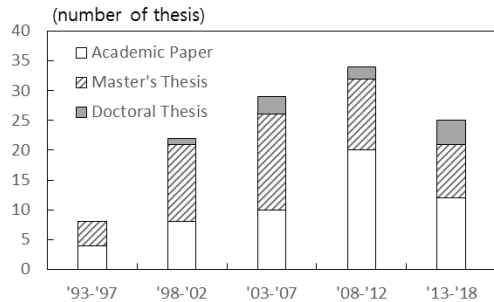


Fig. 3. Number of thesis on feminist design in domestic field, changes in every five years

학위 논문 발표 건수는 Fig. 3, Table 2에서와 같이 2000년대 이후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석사학위 논문은 연평균 2.4건, 박사학위 논문은 연평균 0.5건으로 여전히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Table 2. Feminist design study in domestic field, number of thesis in each design subjects

	'93	'94	'95	'96	'97	'98	'99	2000~ (average)
Journal	1	-	-	1	2	1	3	2.2
Master	-	1	2	1	-	1	4	2.4
Doctor	-	-	-	-	-	-	-	0.5
NET	1	1	2	2	2	2	7	5.1

3.2 분야별 특징

전체 113건의 연구 중 디자인 연구 분야별 건수는 Fig. 4, Table 3에서와 같이 패션 디자인 61건, 시각 디자인 25건, 건축 디자인 15건, 디자인학 9건, 제품 디자인 3건순으로 높았다. 몸과 페미니즘의 직접적 연관성으

로 인해 1990년대 초기 연구부터 패션 디자인은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주요 연구 분야였다. 이는, 미국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분야 초기에 건축, 제품 디자인 등 가부장제 세계관 질서 하에 창조된 일상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던 전통과는 달리 국내 연구 건수는 건축 디자인 15건, 제품 디자인 3건에 머물러 대조적이다. 손미희, 임영자에 따르면 당대 “현대적 의미의 패션 도입” 측면에서 일하는 여성의 복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14]. 그 후 하위문화 확산의 매개체로서의 안티-패션, 성별이분법을 넘어선 혼성적 패션이 페미니스트 디자인 관점에서 연구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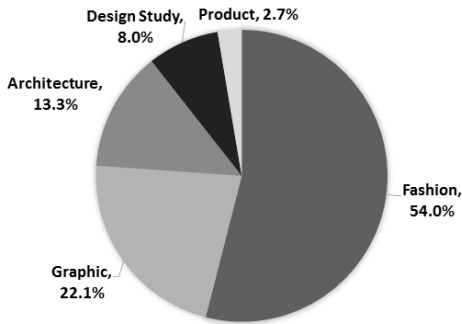


Fig. 4. Percentages of thesis in each design subjects, feminist design in domestic field

Table 3. Feminist design study in domestic field, number of thesis in each design subjects

	Fashion	Graphic	Architecture	Theory	Product	NET
'93-'97	4	4	-	-	-	8
'98-'02	15	4	2	1	-	22
'03-'07	14	7	2	4	1	28
'08-'12	17	5	7	1	2	32
'13-'18	11	5	4	3	-	23
NET	61	25	15	9	3	113

시각 디자인 분야 연구 25건 중 7건을 제외한 모든 연구가 광고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시각문화 안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된 기호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수행되었다.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역사에서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졌던 손쉬운 비평의 대상이 곧 광고였고, 국내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편집 디자인, 영화 포스터, 애니메이션

선,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시각 디자인 분야 비평 범위가 다양화되고 있다.

3.3 저자별 특징

주목할 만한 저자는 국내 최초의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석사학위 논문을 집필한 조현신이다. 1994년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잡지광고의 기호론적 연구”를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발표했다[15]. 10년 뒤인 2003년 한국디자인학회 학술지에 “페미니즘 시각의 디자인 연구 방법론 고찰”이라는 소고를 발표하고 4년 뒤인 2007년 한국기초조형학회 학술지에 앞선 연구의 심화 연구로서 “또 하나의 대안, 페미니즘 시각의 디자인 연구 방법론”을 게재한다. “여성 디자이너, 여성 사용자, 여성 이미지, 여성 디자인 영역, 여성 디자인사/비평가 총 5개의 연구영역을 세분화하여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16]. 조현신의 뒤를 이어 2005년에는 이영희가 디자인여성학 학술지를 창간한다. 창간호 논문 “디자인 여성학의 학문적 배경과 좌표”에서 디자인 여성학(Design for Women’s Concern)을 ‘여성 디자인 영역, 여성 사용자’와 같은 여성의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로 정의하였다. 페미니스트 비평을 ‘여성성, 여성다움’으로 한정지었으며 해당 학술지는 6년간 출간 후 2012년 발행이 중단되었다.

특히, 디자인학 분야에 있어 디자인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규정하는 데에 공회전적 담론을 생산해오던 2002년—2010년 구간을 넘어, 최근 발표된 이주민의 연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바우하우스”, 신은혜의 “여성 디자이너 고용에 나타난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등은 페미니스트 디자인사, 디자인학에 있어 새로운 시도로 주목할 만한 시도다.

3.4 의미연결망 분석에 따른 특징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주제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국내 연구 주제 특수성 분석의 비교군으로 2.2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학술지 논문의 초록 핵심어를 Fig. 5와 같이 매핑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했다.

x축은 시간(time)을, y축은 이항대립성(binarity: 여성 대 남성으로서 성별이분법을 반영하는 정도)을 기준으로 매핑하되, 영미권-국내 분석 결과를 동일 시간축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국내 아카이브 의미연결망을 Fig. 6과 같이 배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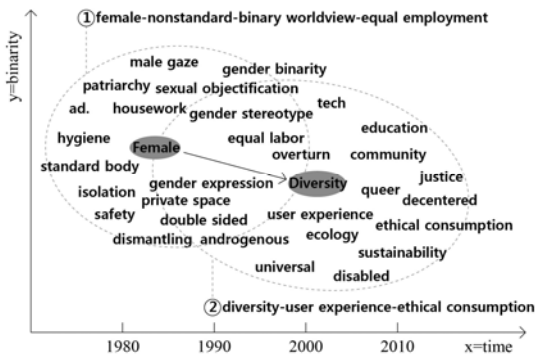


Fig. 5. Keywords mapping, feminist design study in western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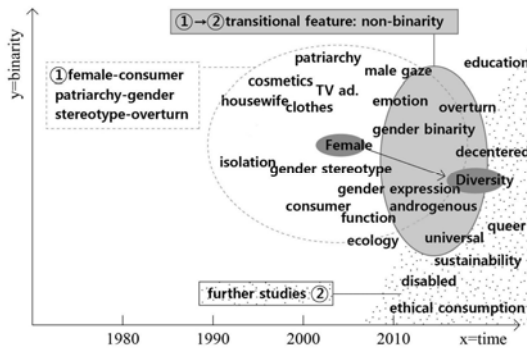


Fig. 6. Keywords mapping, feminist design study in domestic field

x축 이행을 통해 연구 시기별 연구주제의 추이를, y축 이행을 통해 페미니스트 디자인 관점이 성별이분법 해체(binarity)로부터 사회적 성별로서의 젠더와 소수자성 포용(nonbinarity)으로 이행하는 양상을 알 수 있다.

영미권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는 Fig. 5와 같이 공적 공간 내 비표준적 신체로서의 여성 사용자를 수용하는 디자인과 남성 중심적 세계관의 전복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던 1980-90년대 구간을 지나 1999년과 2000년 여성 디자이너를 한 자리에 모아 업적을 기록한 전시와 이를 통한 연구 저작의 발행(로스차일드, 커크햄 참고)을 기점으로 연구주제가 ‘평등구조’를 넘어 ‘다양성’으로 급격히 과생되어 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국내 논문 초록 핵심어를 매핑하여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Fig. 6처럼 1990년대 연구자들의 주요 연구가 남성중심사회에서 주부/소비자로서 여성의 고정된 역할 탈피를 다루던 것에서 다양성과 탈 중심성의 포용으로 확산되는 이행기적 특징을 보인다. 한편, 영미

권에서 2010년 이후 동시대에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닌바이너리 영역 즉, 퀴어, 장애인, 디자인 정의 측면에서의 윤리적 소비 분야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미연구된 영역으로서 차이점을 보인다. 국내 연구는 2010년 이후 이분법 해체와 평등구조를 압축적으로 다룸으로서 장애인, 생태, 퀴어, 윤리적 소비 등 더욱 세분화된 탈 중심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연구의 분야로의 확산이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의 부채를 반복적으로 지적하던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의 계보를 정리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선결적으로 ‘페미니스트 디자인’의 정의를 밝히고 공동의 연구 개념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본 연구 용어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영미권의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역사를 1970년대 실라 르브랑 드 브레트빌의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이후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를 아카이브 하고 이상의 문헌고찰을 통해 특징을 분석했다. ‘페미니스트 디자인’ 정의를 기준으로 아카이브 목록 추출을 실시했으며,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를 학술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으로 분류하여 이 목록이 제시하는 연구의 경향성을 시대별, 분야별, 저자별로 해석하고 의미연결망 분석에 따른 연구 주제의 이행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인 연구 수는 1999년 급증한 후 2000년대 들어 지금까지 연평균 5.1건의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었다. 분야별 특징으로, 전체 연구 중 패션, 시각, 건축, 디자인학, 제품 순으로 연구 수가 많았다. 연구 주제의 경우, 2000년대 이전 연구가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의 고정된 역할 탈피를 다루던 것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성과 탈 중심성의 포용으로 이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후 장애인, 생태, 퀴어 등 더욱 세분화, 다양화된 주제들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연구의 분야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의 맥락에서 주요 연구를 선별한 질적 목록을 기록하고 확장해 나간다면 본 연구 역시 갱신되어야 할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1] J. Park. (2018). Doing Intersectional Analysi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Women's Studies Review*, 35(1), 163-183.

- [2] M. Kim & E. Jeoun. (2018. January). Design and Life Keywords 2018, *Design*, 487, 51-57.
- [3] E. Kim & E. Jeoun. (2019. January). Design and Life Keywords 2019, *Design*, 475, 112-117.
- [4] G. Kim. (2018). Gender, Creation, and Economy, *LetterSeed*, 10(1), 12-19.
- [5] L. Kim. (2019). *Web Archive of Feminist Design Studies*.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OHNtNYdyDIUyDpjW4zPWa7kJWLjixgx9omctXA8_8/edit?usp=sharing
- [6] S. L. De Bretteville. (1974). A Re-examination of Some Aspects of the Design Arts From the Perspective of a Woman Designer. *Arts in Society*, 11(1), 114.
- [7] S. L. De Bretteville. (2018). Insights 2018: Sheila Levrant de Bretteville, Yale University/Sheila-Studio, <https://www.youtube.com/watch?v=QY8d80tGal4>
- [8] S. L. De Bretteville. (1983). Feminist Design: at the intersection of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Design and Society*. London: The Design Council London, 86-93.
- [9] M. Lavin. (1993). *Cut with the Kitchen Knife: Weimar Photomontages of Hannah Hoc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0] E. Lupton. (1993). *Mechanical Brides: Women and Machines from Home to Office*,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e Press.
- [11] M. Scotford. (1994). Messy History vs. Neat History: Toward an Expanded View of Women in Graphic Design. *Visible Language*, 28(4), 367-387.
- [12] R. Joan. (1999). *Design and Feminism: Re-Visioning Spaces, Places and Everyday Things*.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 [13] P. Kirkham. (2002). *Women Designers in the USA 1900-2000: Diversity and Differ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14] M. Son & Y. Lim. (1997). Study on Influence of Feminism toward Modern Fashion, *Boksik* 23, 261-282.
- [15] H. Cho. (1994). *Advertisement Design on Feminist Perspective*, Master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16] H. Cho. (2007). Another Alternative, Feminist Design Study Methodology, *Korea Basic Formative Art*, 8(1), 585-596.

김 린(Lynn Kim)

[정회원]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시각 디자인(학사)
- 2012년 8월 : 런던예술대학교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그래픽디자인(석사)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박사수료)
- 2017년 9월 ~ 현재 : 동양미래대학교 시각정보디자인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 E-Mail : lynnkim@dongyang.ac.kr

박 수 진(Soo-Jin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정보디자인(학사)
- 2001년 8월 :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Central Saint Martins)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시각디자인, 타이포그래피
- E-Mail : curioussofa.sj@gmail.com